

제주SK FC, 전주성 정복... 리그 5위 질주

K리그1 22R 전북현대전 3-1
4년만 전북 방문경기 승리
네게바 '헤트트릭' 맹활약
전북 역공에 교체술 '적중'

제주SK FC가 네게바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전북 현대를 제압하고 7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하며 5위로 올라섰다.

제주SK는 지난 8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 방문경기에서 네게바의 헤트트릭(1경기 3골)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 2022년 5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전북 방문에서 승리를 거둔 제주SK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3승4무)로 8승7무7패 승점 31점으로 7위에서 5위로 올랐다.

제주SK는 전반 23분 선제골 사냥에 성공했다. 이탈리아가 페널티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승우에게 파울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네게바가 가볍게 마무리했다.

이후 제주SK는 거센 전북의 압



지난 8일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제주SK 네게바가 덤블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박에 시달렸고 결국 후반 13분 이승우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실점을 내준 제주SK는 전북의 추가 공세가 더욱 거세지자 후반 16분 최병욱 대신 박창준을 기용한 데 이어 후반 22분 이창민과 조인정을 빼고 권기민과 정운을 교체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반격에 나선 제주SK는 후반 25분 앞서나는 득점을 터트렸다. 아이아스의 도움을 받은 네게바가 강렬한 슈팅으로 전북의 골문을 뒤흔들었다.

이후 전북의 공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제주SK의 수비 집중력을 쏙 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멀티골을 기록한 네게바가 후반

추가시간 아이아스가 내준 불을 감각적으로 마무리하며 확실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주SK는 오는 15일 FC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 2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안양과는 오는 19일 코리아컵 16강 경기도 예정돼 있다.

위협성기사 yswi1968@ihalla.com

성접대·2억원대 횡령... 축협 과거 비위 '줄줄이'

2017년 수사서 빠졌던 해외 심판 성접대 실체 수면 위로
당시 경찰 발표 흘쩍 넘는 횡령 규모... 법인가드 '평평'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전방위적 수사와 논란 속에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15년 전 발생했던 협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15년 전 축구협회의 법인가드 유용 내역에는 2017년 경찰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누락됐던 외국인 심판 안마사술소 성 접대 정황이 핵심 비위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2억원대에 달하는 금품 유용과 비상근 임원에게 제공된 특혜

지원 의혹 내용도 명확히 적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간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과 올림픽 예선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 및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국 직원들은 성 접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재 서류에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기안을 조작했고, 허위로 작성된 정산 기안은 대리와 과장, 국장을 거쳐 당시 부회장 윗선까지 그대로 결재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경찰의 축



입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구협회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당시 경찰은 조중연 전 회장, 이희택 전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며 결과를 발표했으나, 주요 수사 내용은 임원들의 골프장(약 5200만 원) 및 유흥주점(약 2300만 원) 이용과 조회장의 부인 동반 출장 관련 횡령 등에 집중됐다.

당시 수사 발표에서는 임직원들

의 전체 횡령 액수가 약 1억1000만 원 상당으로 보도됐으나,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협회 임직원 18명은 법인가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사술소 등에서 1501회에 걸쳐 총 2억1600만 원을 결제해 대부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직원 15명은 주유소에서만 총 1억500만원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법인가드가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수도룩했다.

노래방 14회(197만3000원), 안마사술소(608만원), 유흥·단란주점(2334만600원) 등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증빙 자료가 없고 소명되지 않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협회 임직원들이 백화점에서 270만4350원을 결제한 내역 역시 뚜렷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장은수, KLPGA 삼다수 마스터스서 첫 우승
데뷔 10년만에 187번째 출전 대회서 정상

장은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장은수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냈다.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장은수는 공동 2위 강채연과 문정민(이상 13언더파 275타)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8000만 원을 받았다.

2017년 신인왕 출신인 장은수로서는 정규투어 187번째 대회에서 일궈낸 첫 우승이었다.

상비군과 국가대표를 거쳐 신인왕까지 차지했던 장은수였지만 2020시즌 이후 세 차례나 정규투어 출전권을 잃고 드림투어를 병행했다.

강채연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장은수는 마지막

홀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15번 홀까지 강채연과 동타를 이뤘던 장은수는 16번 홀(파4)에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3라운드까지 홀 평균타수 4.36타로 이번 대회 홀 중 가장 어려운 홀로 꼽히는 16번 홀에서 장은수는 두 번째 샷을 홀 3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았다.

하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17번 홀(파3)에서는 그린을 놓쳤지만 웨지 클러프로 홀 1.2m에 붙여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18번 홀(파4)에서는 티샷이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고, 유틸리티 클럽으로 친 두 번째 샷은 공 윗부분을 때리고 말았다.

하지만 빗맞은 공은 낮은 탄도로 날아가 그린 위에 올라갔고, 2퍼트로 마무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장은수가 9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2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U-17 女배구, 세계선수권 이탈리아 꺾고 3연승

한국 17세 이하(U-17)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침없이 3연승을 질주했다.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이탈리아를 세트 점수 3-1(25-14, 25-19, 13-25, 25-20)로 눌렀다.

푸에르토리코, 대만, 이탈리아를 연파한 우리나라는 승점 9를 기록해 조 1위로 뛰어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24개 팀이 6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1·2세트를 쉽게 잡은 우리나라는 초반부터 밀린 끝에 이탈리아에 3세트를 내줬지만, 4세트에서 전열을 정비해 종반 점수 차를 벌리며 승점 3을 챙겼다.

우리나라는 11일 도미니카공화국, 12일 알제리와 대결을 끝으로 조별리그를 마감한다.

연합뉴스

미리가는 주말 1박2일 가을여행

전남(순창,구례,순천) + 경남(하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광주공항 도착 - 순창 체재산 출렁다리
- 중식 - 구례 사성암 -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호텔 체크아웃 후 조식 - 하동 삼성궁 - 중식
- 최창민관 관광 - 하동 화개장터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399,000원 3인1실 395,000원 4인1실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5일, 12일, 19일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마지막 바캉스 1박2일 쿨링여행

청주+단양+충주+제천

더위는 날리고 힐링은 가득! 시원한 여행지에서 즐기는 특별한 1박2일!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청주공항 도착
청풍 나루 크루즈 단양 고수동굴 단양 강진도

2일차
조식(호텔식) - 단양 구인사(천대종 총본사)
단양 온달동굴 -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49,000원 3인1실 445,000원 4인1실 44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5일, 12일, 19일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추석/개천절 연휴 힐링가득! 감성가득! 1박2일 감성여행

전남(순창,구례,순천) + 경남(하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광주공항 도착 - 순창 체재산 출렁다리
- 중식 - 구례 사성암 -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호텔 체크아웃 후 조식 - 하동 삼성궁 - 중식
- 최창민관 관광 - 하동 화개장터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39,000원 3인1실 435,000원 4인1실 43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26일 / 10월 3일 (단 2회)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개천절 연휴 1박2일 힐링여행

청주+단양+충주+제천+정선

청풍 나루 크루즈 중식 단양 고수동굴 단양 강진도 온달동굴 본초다담 죽목체험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청주공항 도착
청풍 나루 크루즈 - 중식 단양 고수동굴 - 단양 강진도

2일차
조식(호텔식) - 단양 구인사(천대종 총본사)
중식 - 단양 온달동굴 -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출발일: 10월 3일 단 1회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여행자보험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